



[낙농경영] 뉴질랜드 낙농업계, 낙농가 고충 해소 위한 권고문 전달

- 규제 속도 조절, 인력난 해결 및 환경 보존 위한 지원 확대 등 당부



뉴질랜드 낙농업계가 낙농가들의 고충 해소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뉴질랜드 낙농협회(DairyNZ)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원유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강화로 낙농가들이 큰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협회 측은 규제 완화, 인력난 해소 등 농가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권고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문의 주요내용은 규제 속도를 조절하고 인력난 해결 및 환경 보존을 위한 농업 공동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지역사회에 부족한 광대역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촌 연구 개발을 위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나아가, 메탄가스 저감, 생물보안 강화 등에 업계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회관계자는 농가들의 연구 개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수익성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직면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가들의 삶과 웰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출처 : odt.co.nz, 11월 10일자 >

[우유급식] 美 버지니아주, 학교급식 내 초콜릿우유 공급 유지키로

- 초콜릿우유 공급 논란 끝에 계속 공급키로 결정



초콜릿우유가 어린이 비만의 주범으로 꼽히며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버지니아주 하일랜드 카운티 교육구는 학교 급식에서 초콜릿우유를 계속해서 공급키로 결정했다.

최근 교육구는 건강 및 웰빙 정책 검토 과정에서 초콜릿우유의 설탕 함량에 대한 학부모 대표의 의구심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학교 급식식단에서 초콜릿우유를 제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결정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되자마자 학부모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일부는 성장기 첨가당 섭취를 최소화함으로써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찬성했다.

한편,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우유를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것보단 초콜릿우유를 통해서라도 섭취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교육구는 이를 즉각 수용해 초콜릿우유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결정을 반복했다.

< 출처 : wsfs.com, 11월 11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